

開校 70周年을 자랑하는 私立
의 名門 東國大學校一。 우리同門
들은 이학問의 溫和한 姿態에서
코끼리처럼 슬기롭고 용맹한
으로 正義의 구현에 앞장서 真理
探求에 젊은 情熱을 바쳐왔다.
주른번취와 치솟는 분수, 慈悲로
운 미소가 드리운 聖像, 図書館,
讀義室, 운동장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솔결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母校發展을 위해
身命을 다한 歷代 總·學長들의
회고기를 통해 그날자취를 더듬는 것
도 他山之石의 좋은 귀감이 아닌 到着
것이다. 事情上 歷代順이 아닌 到着
順으로 게재했다. <편집자>

東大와 나의 總長時節

<1>



◇ 金賛益總長近影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三大宿願사업의 達成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나는 다음 要旨의

을 조심하였으며 하루도 긴장을 풀

온날이 없었다.

그자리에서



◇黃同門이 貓眞 앉은 哲學博士學位를 받고나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55년 佛敎科를 졸업하고 43년 菩薩戒을 수여받았습니다.

夫婦以前엔 先後輩 관계

黃同門은 教授生活등 純東大「맨」

金同門때 女學生會 첫 卒業반지

水原시내 遠경이 한군 59년 佛敎科를

에 네려다 보이는 이자 즐업 夫婦이전에 先後輩

방의 명소 八達山기슭에 2세인 黃薰

래 자리잡은 절寺 大 군도 76년 佛敎美術科를

승院! 약 3천여 평 대지에는 장나루 유통나루가 아

들이 진 잔단발이며 떨어진 花草와 맑은 물다운 숲을 이루었고,

그 가장자리에 大雄寶殿에 위치하며, 또한 잠다 험나무 밭 대나무나무가 아

었다고 자랑이다.

黃·金 두 동문 사이는 당

시의 恩師 金薰華博士의

교 말하는 黄동문은 끈

大乘院의 住持요 佛敎思

想研究室의 金東華博士(金薰)이며, 金

同門은 同宿의 善事이자

大乘院의 德務·財務·涉

外 등 多多役의 内助者。

黃同門은 佛敎思

想研究室의 金東華博士(金薰)이

며서 그本부가 바로 어

道、대교종도 아님 独自

落實의 社團法人 佛敎思想研究室을 設立하였다.

두동문은 佛敎美術科를

설립,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는 것. 教父의 올바른

실천 보금을 위해 조계종

도, 대교종도 아님 独自

역시 원

廟이 신轉明基坐사주례로 운

혁궁에서 礼式을 올렸다.

<p

混濁된 時代의 佛敎役割 토의

世界 70여 碩學 葉瓣 討論

모교 소식

9月23日 三個分科에 30名主題 발표

「佛教」

現代世界」란 주제의 世界佛敎學術會議가

8월31일~9월2일까

지市内

에서

大會議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學術會議(중

비위원장)洪庭植(교대학장)에는

국내學者를

비롯

美·日·中·仏·加·스

리랑카동 10個國

70여學者가

참석·佛敎가

혼돈한

變化의

時代에

해야할

課題 등에

관한

主題發表와

討論을

하였다.

주제·佛教와 現代世界

9月23日

三個分科에

30名主題 발표

9月23日